
企業의 特許管理를 強化해야할

이제 特許管理도 한 次元높은 段階로 跳躍

物質特許制度의 實施로 國內 企業들은 새로운 轉換期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잃든 좋은 特許制度에 관한 先進國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러나 우리의 技術競爭力은 걸음마 段階인데 市場은 냉혹할 만큼 自由競爭原理가 支配하고 特許制度 또한 先進化되어 國內企業體들은 變身 脫皮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當爲性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는 物質特許制度를 企業의 技術發展과 經營의 合理化를 위해 어떻게 効率的으로 活用할 것인가의 課題의 時急성이 한층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같은 狀況에 비추어 特許管理, 특히 研究業務 종사자들의 特許制度에 대한 理解增進과 함께 特許管理의 重要性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時點에 우리는 直面해 있다.

一般的으로 企業의 特許管理는 5가지 段階로 分類할 수 있다. 이러한 5段階중 우리 企業體가 어느 단계에 位置하고 있는 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物質特許制度의 効率的인 活用을 물론 技術開發 및 特許管理의 적정화를 적극 꾀하여 特許制度의 先進化와 함께 特許管理도 先進化를 해 나가야할 때이다.

즉 1단계는 特許管理의 不在狀態를 말하며, 2단계는 特許專擔部署가 企業內에 설치되어 特許出願登錄등이 單純管理서비스機能만을 담당하는 것이며, 3단계는 特許專擔部署가 開發部署의 技術開發에 관련되는 技術情報의 提供과 事後管理를 並行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特許專擔部署가 開發部署의 出願內容을 評價하고 技術開發方向을 誘導하며 出願에 따른 補賞의 實施, 人事制度와의 관계가 이루어진 단계이며, 5단계는 企業戰略과 特許管理가 完全히 매치되는 最高의 特許管理 狀態이다.

先進國의 경우를 보면 4~5단계에 이르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들면 가까운 日本의 메이지製菓의 경우 中央研究所의 산하에 水平組織으로 藥品研究部, 藥理安全性研究部, 研究管理部를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同社는 研究管理部로 하여금 特許情報調査는 물론 文獻調査, 開發관련 研究管理業務등을 共同修行토록 함으로서 特許專擔部署로서의 기능을 活性化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世界市場에서 우리와 競爭하는 先進企業들은 特許制度의 완벽한 인식과 함께 이를 통

때다 할 時點



俞 漢 龍
(永進藥品 中央研究所 所長)

特 別 寄 稿

한 市場支配戰略을 철저히 구사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우리 企業體들은 극소수의 일부 企業만이 2~3단계에 位置하고 있을뿐 대다수 企業들은 最高經營者에서 부터 말단사원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特許制度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1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先進國의 기술이전 기피가 加速化되어 가고 있는 냉혹한 國際競爭속에 物質特許의 위협으로부터 시급히 벗어나야할 現實을 直視할때 國內 企業의 이러한 狀況은 하루빨리 脫皮와 인식변화로 타파되어야할 時點이다.

실질적으로 物質特許가 施行된지 3개월이 넘도록 特許管理不在의 狀態에 國內의 대다수 企業들이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과연 우리가 험난한 技術競爭時代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들의 競爭者가 우리보다 더 發展된 特許管理技法을 活用하고, 그것을 최대의 무기로 활용할때 우리 企業도 이에 상응하는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물론 物質特許등 工業所有權의 管理業務는 法律的, 技術的으로 매우 專門性이 높은 업무이므로 단기간내에 經驗이 축적되기 곤란한 性格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 바로 이 時點이 特許管理를 先進國 水準으로 높이기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다.

企業들이 技術開發을 위한 投資를 아무리 많이 늘린다 하고더라도 그 結果가 工業所有權의 획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투자의 生産性은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技術開發을 推進하면서 特許技術文獻의 檢索, 調查過程등 特許管理體系가 不實하면 技術開發結果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다.

결론적으로 成功的인 特許管理의 要體는 경영층의 特許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研究開發 종사자의 特許마인드제고와 함께 特許專擔部署職員의 동기부여에 있다고 생각한다.

비근한 예로 日本의 도요다自動車에서는 新入社員에 대한 特許敎育을 의무적으로 實施하고 있고 特許專擔部署의 專門人力이 技術開發本部의 核心的 役割을 담당하여 技術開發 과정에서 發明의 싹이 돋아날 때부터 철저히 관리하여 工業所有權의 資産을 늘려가고 있다. 이같은 先進國들의 特許管理實態를 감안하면 先進化된 特許制度和 걸맞게 우리의 特許管理도 이제 한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企業들이 技術開發을 우리의 資産權으로 축적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배가시킬 때에만 우리의 國內企業들은 튼튼한 工業所有權의 기반 위에서 特許特許時代의 기술우위 企業으로 變身할 수 있다. (☞)